

대학교 총학선거 스마트시대로 전환

전북대 온라인투표 도입 이후 투표율 경중 역대 최고 81% 기록... 학생 만족도도 높아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학생 대표자 선거 등에 시대 흐름에 맞는 선진적 선거 시스템을 적극 도입, 투표율 급등과 학생 만족도 제고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 대학은 지난 15일 제50대 총학생회장, 제35대 총동아리연합회장, 단과대학 학생회장 등의 선거를 위해 처음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진행했다.

온라인 투표는 스마트폰 등을 이용

해 장소적 제약이 없는 투표 참여로 투표율 상승은 물론 투·개표의 정확성 등을 모색할 수 있고 기존 종이 투표보다 시간과 비용 등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때문에 전북대 학생과는 그간 학생회장 선거 등에서 실시된 종이 투표가 선거 참여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투표율이 저조하고 시대적 흐름 등을 감안해 온라인 투표 방식을 적극 도입했다.

이에 이번 총학생회 선거에서 지난

해 54.61%보다 27.3% 상승한 81.91%(총 선거인 1만6,715명 중 1만 3,692명 투표)의 역대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최근 온라인 투표 방식을 도입한 투표인원 1만명 이상의 전체 대학 중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이다.

특히 이번 전북대의 온라인 투표는 전북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과정을 이틀 간 촬영해 12월 중 IPTV 등에서 온라인 투표의 우수 사례로도 소개될 예정이다.

투표에 참여한 최성진 학생(역사교육과 3학년)은 "종이투표 방식이었을 때는 일부터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었는데 이번 온라인 투표는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좋았다"며 "특히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나 부득이하게 학교에 없는 학생들이 시공간을 초월해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방식이었다"고 평가했다.

정명호 학생과장은 "스마트 시대에 맞고 더 많은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도입한 온라인 투표가 이렇게까지 큰 호응이 있을 줄은 몰랐다"며 "이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지원에서도 학생의 눈높이에서 사고하고 배려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해은 기자



전북대학교 학생들이 지난 17일 열린 제4회 대학생 창의적 문제해결 경진대회에서 1위를 포함하여 참가한 2개 팀이 입상한 가운데 학생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창의적 문제해결 경진대회 '왕좌'

전북대팀 대상·우수상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 학생들이 한국표준협회 주최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후원한 가운데 지난 17일 열린 제4회 대학생 창의적 문제해결 경진대회에서 1위를 포함하여 참가한 2개 팀이 입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20일 전북대에 따르면, 전국 16개 대학 98개 팀이 1차 예선을 치르고 본선에 진출한 8개팀 가운데 열린 이번 대회에서 전북대 강가람(기계공학과), 손호영(기계공학과), 김연

우(반도체기술학과) 학생팀이 삼성전자가 제시한 문제에 대해 '로봇청소기의 브러쉬와 캐스터의 형태변환 및 도킹스테이션에서 커티를 이용한 머리카라의 엄김 및 제거'라는 방법을 제시해 경진대회 최고상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홍호형(기계시스템공학부), 장영근(기계시스템공학부), 이은호(전자공학부) 학생팀은 자유주제 부문 한국표준협회장상(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전북대 학생들이 창의적인 문제해결안을 도출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두드러졌다.

수상 학생팀 모두 전북대학교 LINC+사업단의 창의역량 강화교육과 지원을 받았으며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TRIZ 교육, 액션러닝 교육, 다학제융합캡스톤디자인 교육과정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학생의 역량 개발 및 지역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영호 전북대 LINC+사업단장은 "다양한 취·창업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취업역량 향상 및 창의적인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창의적 융합 인재 육성과 취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 하겠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원광대 - 켈코에너지솔루션 에너지 효율화사업 업무협약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와 켈코에너지솔루션(사장 최인규)이 그린 캠퍼스 조성을 위한 에너지 효율화사업 공동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지난 17일 김도중 총장과 최인규 사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켈코에너지솔루션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협약은 켈코에너지솔루션이 원광대 주요 시설에 대한 에너지효율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그린 캠퍼스 조성은 물론 에너지 효율 향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 기여를 위해 마련됐다.

원광대 ICT융합그린에너지 연구원을 주축으로 체결된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그린 캠퍼스 조성 및 친환경 문화 확산을 통해 국가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원광대 4대 특성화 중 하나인 그린에너지 특성화 사업 추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도중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켈코에너지솔루션과 함께 우리 대학의 그린 캠퍼스 조성에 박차를 가하게 돼 기쁘다"며, "그린에너지 특성화는 원광대가 강력히 추진하는 특성화 분야로서 그린 캠퍼스를 통해 대학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수능 D-2' 수험생 챙기기 여념

김승환 교육감, 확대간부회의서 시험연기 관련 대처 강조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포항 지진으로 연기돼 오는 23일 치러지는 수능시험에 도내 수험생들이 편안하게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교육감은 20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지금도 여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냉철한 이성과 과학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번 포항 지진에서 보듯 포항의 문제는 곧 전주의 문제고 전북의 문제다. 결국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의 운명 공동체라는 걸 인식해야 한다"면서 "우리 전북에는 벌일 없을 것이라는 인이한 생각을 갖지 말고 경각심을

갖고 수능에 대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보고서를 통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데 대해 "본질적인 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학교폭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에 대한 이해도와 인권공감능력도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무엇보다 내 아이 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도 내 아이라는 의식을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 피해학생은 치료와 회복을, 가해학생은 다시 돌아오게 하는 교육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해은 기자

소외계층 문화향유 기회 제공 '찾아가는 문화장터'

전주시가 문화예술 공연 관람과 여행, 스포츠 관람 등 문화를 향유하기 어려운 소외계층을 찾아 나섰다.

시는 20일부터 24일까지 평화2동 등 전주지역 5개 주민센터에서 문화누리카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문화장터' 행사를 진행한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예술, 한국

여행, 스포츠 관람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카드다. 올해 1인당 지원 금액은 1인당 연간 6만 원이다.

이번 행사는 첫날 평화2동 주민센터를 시작으로 21일 인후1동, 22일 효자3동, 23일 서신동, 24일 송천2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되며, 전주지역 업체 공예작가들이 직접 만든 공예품과 한지사 숙웃·양말, 스카프, 침구류, 잡화 등이 판매된다.

/김민근 기자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